

4 종합

예체능 계열 공간 부족 예산·실행계획 '아직'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지난 7일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단골 안건인 미술대학(미대) 휴게 공간 확보, 음대 연습실 증축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 학교 측은 “미술대학을 증축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공간 조정을 해서 답을 찾을 수는 없겠냐”라며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음대 안건 또한 “별동 증축 위치와 디자인은 정했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우리신문은 예체능 학생 실습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미대 학생들은 실기실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6층의 미대 휴게 공간은 하나다. 그마저도 교·강사 휴게실이다. 학생 실기실은 본 목적인 작업 공간보다 넘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실기실 한가운데에는 접이식 침대가 있었다. 미술 작업 도구만 있어야 할 작업 공간에 배달음식 잔반도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미대 김나연(회화 2022) 회장은 “실기실에서 돌을 깎는 작업 등 다양한 과정에서 휴먼지가 생긴다. 유화 작업을 할 때는 불과 기름도 사용한다.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음대 역시 공간 부족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비울라 연습실에서 만난 김윤서(기악 2024) 씨는 “연습실이 부족해 친구와 한 연습실에서 둘이 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리가 겹쳐서 집중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음대는 학부생 500여 명과 대학원생 120여 명이 70개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다. 소통간담회에서 총무관리처는 “2023년에 대학 본부에서 음악대학의 별동 증축을 결정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아경(성악) 교수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 부총장님께서 여러 차례 방문해 주셨다. 학생 기대가 큰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무용학부 역시 공간 협소 문제를 겪고 있다. 무용학부 학생회 장정아(한국무용 2022) 회장은 “많은 연습 시간이 필요한데 수업 시간 외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해야 하는 연습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는 TF팀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현재 공간관리시스템 안착을 위한 TF팀 구성을 결재받는 단계”라며 “그 이후의 업체 입찰 준비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TF 구성은 마무리된다.

추가적으로 관리팀은 예체능 실습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팀은 “음대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다”며 “공간관리시스템이 안착된 후, 예를 들어 법학관에 남는 공간을 검토한 후 음대에 연습 공간으로 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구)한대의 5층에 미대 대학원 공간을 배정했다”며 “그래도 한계가 있다면 증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던 학생 강 모씨와 강 씨의 아버지가 이과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주변의 도움 기적 만들어” 심정지 학생 가족, 장학금 전달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서울】9월 10일 강의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던 학생 강 모씨와 강 씨의 아버지가 이과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외협력처는 기부자 라운지에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학교 발전기금으로 4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중 100만 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지리학과 학생 두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특별장학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300만 원은 지리학과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강 씨 아버지는 “생명을 살려 주셨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학에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기부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9월 10일 벌어졌다. 오전 9시경 이과대학에서 수업을 듣던 강 씨가 심정지로 쓰러졌고 주변 학생의 재빠른 대처로 강 씨는 병원에 옮겨져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

강 씨 아버지는 “교수님, 학생들, 행정실장님, 간호대 교수님이 골든타임 안에 빠른 응급조치를 한 덕분에 뇌 손상이 없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주변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구급대는 7분 만에 현장에 도착

했고 강 씨는 바로 경희의료원에 옮겨져 인공심장 수술을 받았다. 현재 강 씨는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무리가 없는 상태이다.

강 씨는 이 일을 겪고 새로운 생일이 생겼다. 강 씨 가족은 강 씨가 의식을 되찾은 날에 촛불을 켜다 시 태어난 날을 기념하고 떡을 돌렸다고 했다. 강 씨는 “일면식도 없었던 두 친구가 용기 내어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살아났다”며 개인적으로 연락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대외협력처 김정미 팀장은 “나눔을 결정한 건 큰 결심”이라며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4-2학기 모자이크장학

모자이크장학 개요

1) 목적

- 가) 학생역량개발 계기 마련
나) 능동적, 성취지향적 장학문화 구현
다) 역동적 대학생활 및 면학 환경 조성

2) 내용

- 가) 4개 분야(학업역량/진로역량/국제화역량/기타역량)에서 인정 기간 내 학생이 취득한 실적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장학금 지급
나) 학생 역량개발을 위한 맞춤형 장학으로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등록금외장학)

3) 신청대상

- 가) 2024-2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원성적 기준), 이수학점 12학점(6년제 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인 자
나) 포인트 인정기간 내 취득한 분야별, 항목별, 등급별 포인트 합계가 **15만 포인트 이상**인 자

4) 지급금액 : 최소 150,000원 - 최대 2,000,000원

5) 신청방법 : 인포2 온라인 신청 및 실적증빙서류 제출

※ 개인역량 시스템 입력 및 승인절차 있음

가) 신청기간 : 2024.12.16.(월) ~ 2025.01.03.(금)

나)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인포2(등록/장학) 장학신청 > 모자이크장학 신청
(2) 서류제출

- 제출서류: 취득한 실적 증빙
- 제출방법: 인포2로 제출

6) 선발방법 : 장학수혜 기본자격(학적, 직전학기 성적, 이수학기 등), 제출실적의 진위 여부 및 취득기간 등을 확인하여 장학 대상자 선발

7) 진행일정

- 가) [학생] 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 2024.12.16.(월) ~ 2025.01.03.(금)
나) [단과대학] 학생 신청내역 확인 및 결과제출 : 2025.01.06.(월) ~ 01.19.(금)
다) [학생지원센터] 장학사정 및 장학금 선발 : 2025.01.20.(월) ~ 01.24.(금)
라) [학생지원센터] 장학금 지급 : 2025.01.27.(월) ~ 02.07.(금)